

# ‘컴퓨터는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기계다’

## -컴퓨터 교육과 컴퓨터 마인드의 보급-

### 안문석

#### 1. 서론

성기수 박사는 초창기 KIST 전산실이 치중해야 할 중요한 사업의 하나를 컴퓨터 마인드의 확산에 두었다. 이를 위하여 신문이나 TV에 출연하여 열심히 계몽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성기수 박사가 중점을 둔 사항은 ‘컴퓨터는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기계다’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주는 것이었다. 이 일은 주로 안문석이 맡았다.

여기서는 그 시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다.

#### 2. 경과

안문석이 처음에 시도한 것은 컴퓨터 언어 공개강좌였다. 직접 디자인하여 신문 광고를 냈는데, 성기수 박사의 아이디어였으며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비싼 수강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아마 지금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30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신 컴퓨터 실습시간을 거의 무한으로 가능하게 해 주고 교재 대금과 강의료가 모두 포함되었다. 접수는 명동 YWCA에 방을 빌려서 안문석이 했는데, 수강생 한명이 나타나면 30분 정도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한반이 차서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FORTRAN과 COBOL이었다. 첫 강의는 안문석이 주로 하였고 부분적으로 전산실 요원들이 참여하였다. 제2기부터는 자체 충원을 하였다. 즉 제1기생 가운데서 성적이 우수한 수강생을 현지임관(?)하여 교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강의 장소는 홍릉 A-1에서 시작하였다. 모두 열심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IST 교육반은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다.

다음으로 성기수 박사가 낸 아이디어는 통신강의를 하지는 것이었다. 이것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재를 우송하고 교재 안에 있는 연습문제를 해온 사람에게는 편치 카드에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컴퓨터에 입력해 주고 컴파일한 결과를 카드와 함께 보내 주는 것이었다. 자세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수강료는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통신강의도 안문석이 담당하였다.

FORTRAN 교재를 만들고, COBOL 교재도 만들었다. 지금도 KIST 도서실이나 자료실에 가면 그 당시의 교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 작성에는 공군 중령으로 현역이었던 한필순 박사도 참여하였다. 한 박사는 안문석 팀장 방의 옆에 책상을 정하고 교재를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화로 상담을 받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이 일도 안문석이 했으나 나중에는 김정선이 맡았다. 이렇게 하여 KIST 전산실 교육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교육반은 그후, 서울 분소에서 맡아서 했고 부산 분소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기도 하였다. 강남 분소가 생기면서 교육기능이 활성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 분소 시절에는 독고 승이 맡았고, 강남 분소 시절에는 김봉일이 그 책임을 맡았다.

초창기, KIST 교육이 소문이 나면서 각급 기관이 교육을 의뢰하였다. 기억에 남는 기관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경제기획원 예산국: (이 부분은 다른 곳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세정과에서 특별시험을 거쳐 선발된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다. 담당은 안문석과 김정선이 하였다. 장소는 서울시 위생시험소였다. 교육은 COBOL과 FORTRAN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교육 실습으로는 재산세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무에 응용하였다. 현재 시청 전산실의 주요 요원은 그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교육이 끝난 후 이철훈은 소속을 KIST로 옮겼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에서 전산요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의 산업연구원 강의실 (당시 KORSTIC)을 빌려서 교육을 하였다. 봉급계산을 포함하여 중요한 프로그램을 교육중에 개발하여 실무에 직접 이용하였다. 교육은 역시 안문석이 담당하였다.
- 서울신탁은행: 전산요원으로 선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공동 본사 강의실에서 교육을 하였다. 교육은 안문석, 이철훈 등이 담당하였다.
- 한국은행: 전산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은행에서 교육을 하였다.
- 동아제약: 전산실 직원을 선발하여 교육을 하였다. 안문석, 김봉일이 담당하였다. 교육에 참여한 사람과 함께 개발한 판매관리 프로그램은 그 당시로는 민간부문에서는 최초의 가장 앞선 시스템이었다.
- 해태제과: 요원 교육과 함께 판매 및 원가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사장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활용은 중도에 중단되었다.

이 모든 교육과정에 성기수 박사의 특이한 경영철학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초창기 컴퓨터 마인드 확산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 3. 에피소드

- 통신강의를 이수하고 여기에서 컴퓨터 언어를 배워서 나중에 중요한 국영기업체의 전산과장이 된 사람도 나타났다.
- 서울특별시 직원이었으나 교육을 받고 근무하다가 KIST로 자리를 옮긴 사람으로는 이철훈과 신동필이 있다.
- 이 당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그 기관의 전산책임자가 되어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